

“한 계단씩 위를 보고 간다…키플레이어는 위즈덤”

후반기 반격 의지 다지는 이범호 KIA 감독

‘올스타 휴식’ 종료…훈련 재개
‘부상’ 나성범·김선빈 등 합류
복귀 선수들 선발 라인업 배치
이의리 등판은 18일이나 20일
선수들 믿고 매 경기 집중할 것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후반기 키 플레이어로 위즈덤을 주목하고 있다.

올스타브레이크를 보낸 KIA는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후반기를 위한 훈련을 재개했다. 올스타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제외한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등 부상 복귀 선수들까지 그라운드에 올라 스파이크를 조여 냈다.

힘찬한 전반기를 보낸 이범호 감독은 “할 것이 많다”며 후반기에 앞둔 소감을 이야기했다.

약물 갑턴 줄부상 상황에도 ‘잇몸’들의 활약으로 희망을 보았지만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기대했던 한화와의 승부에서 스윙패를 당하면서 현실적인 순위를 목표로 삼고 도약을 노려야 하고, 부상 선수와 복귀 선수 등을 고려해 최선의 라인업도 구성해야 한다.

일단 이범호 감독은 초반 공세와 빠른 적응을 위해 부상 복귀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하체 부상이 있었던 만큼 7회 이후에는 수비 강화에 맞춰 라인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지막 두 경기를 뛰지 않았던 최형우는 정상적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형우는 괜찮다고 해서 엔트리에서 안 뺐다. 이상 없다. 형우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기는 했다. 중심에 형우가 빠지고 나니까 찬스가 왔을 때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최형우의 상태와 존재감을 이야기했다.

최형우가 버티고 있는 타선에 나성범, 김선빈이 가세한다. 그만큼 이범호 감독은 타선의 키로 위즈



이범호 KIA 감독

덤을 꼽았다.

이범호 감독은 “위즈덤이 키다. 위즈덤이 중요한 상황에서 쳐주면서 형우, 성범이한테 기회를 넘겨주면 잘될 것 같다. 형우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성범이도 부상으로 쉬었던 만큼 팀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선빈이도 찬스를 잘 만들기 때문에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며 “위즈덤이 투아웃 상황인 아니라 아웃카운트 살아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게 나올 것 같다. (주축 선수들) 다 모이면 무서운 선수다”고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은 김선빈의 몸 상태를 고려해 2번 박찬호, 3번 위즈덤을 생각하고 있다. ‘리드 오프 후보’ 이창진과 고종욱의 컨디션에 따라 위즈덤을 2번으로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

하위 타순이 강해진 만큼 주축 선수들과 배치되



부상에서 돌아온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왼쪽)와 김선빈이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올스타브레이크를 보낸 선수단은 이날 후반기 훈련을 시작했다.

는 위즈덤의 위력은 배가 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상대 에이스 만나도 안 타 치고, 홈런도 치고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며 “김호령은 센터에 두고 기용하겠다. 지금 그대로 꾸준히 하면 될 것이다. 표정도 그렇고 대화를 하면 성향도 달라졌다. 센터에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위 타순에서 지금처럼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성적 낼 것이다”고 김호령에 대한 믿음도 이야기했다.

마운드 부상 복귀 선수인 이의리의 가동 날짜는 유동적이다.

17일부터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후반기 4연전 일정을 갖는 이범호 감독은 18일과 20일을 D-데일로 삼고 있다. 이의리는 앞서 퓨처스 리그에서 세 차례 실전을 통해 리하설을 끝냈다.

이범호 감독은 “물집은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전이나 4차전을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60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 날 네일이 들어가기나 에이스가 나가면 볼펜이 쉬는 부분이 있어서 2차전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4차전에 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올리의 복귀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맞춰 김건국을 선발로 준비시키고 있다.

전반기 볼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범호 감독은 ‘믿음’으로 뒷심 싸움을 이어갈 생각이다.

이범호 감독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필승조가 잘 던져줬다. (전)상현이, (조)상우, (정)해영이가 이닝 수도 많은데 이기는 경기 열심히 던져줬다. 고생하는 자리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올 수 있는 자원은 없고, 믿고

가겠다”며 “중간중간 좌완 (이)준영, (최)지민을 활용해서 이닝을 줄여가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성영택의 역할이 중요한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영택과 김건국을 4·5회 따라가는 시점에 2이닝 정도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성영택이 버티면서 추격을 해준다면 KIA 뒷심 싸움의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1경기 1경기 잘 치러 가는 게 첫 번째다. 지금은 제일 높은 데를 보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 부상 선수를 들어오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다 보면 찬스가 생길 것이다. 매 경기에 집중하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14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PSG에 3-0…콜 파머 2골 1도움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유럽 챔피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을 완파하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첼시는 14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23세 공격수 콜 파머를 앞세워 PSG에 3-0으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첼시는 참가팀이 32개로 확대된 사실상 새로운 대회로 거듭난 클럽 월드컵 우승 트로피의 첫 주인이 됐다.

첼시는 또 결승전 승리에 따른 상금 4000만달러(약 551억원)를 포함해 총 1억2950만달러

(1786억원)라는 거액의 우승 상금을 가져간다.

참가팀 확대 전 대회 성적을 더하면 2021년 대회에 이어 첼시의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2024-2025시즌 잉글랜드 국내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으나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의 3부 격 대회인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우승한 첼시는 ‘첫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추가하며 ‘더블’ (2관왕)로 시즌을 마감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4-0으로 대파하는 등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던 PSG는 결승전에서 예상 밖 완패를 당해 자존심을 구겼다.

이전까지 올 시즌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PSG는 전무후무할 ‘퀀트플’ (5관왕) 달성에

실패했다.

팽팽하게 전개되던 승부의 흐름을 파머가 전반 중반 8분 사이 2골을 터뜨리며 확 바꿨다.

첼시 말로 귀스토가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까지 돌파해 날린 슈팅이 수비수 발을 맞고 나오자 중앙에서 뒤따르던 파머에게 넘겼고, 파머는 골대 왼쪽 하단을 찌르는 정교한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파머는 전반 30분에는 후반에서 넘어온 롱 패스를 받은 뒤 원발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아 추가골을 뽑았다.

전반 43분에는 주앙 페드루가 파머의 침투 패스를 받아 오른쪽 침습으로 마무리, 3-0을 만들었다.

주책에 애쓰던 PSG는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가 후반 40분 마크 쿠쿠렐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가 비디오판독(VAR) 끝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자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FIFA) 회장과 함께 결승전을 끝까지 관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조정 ‘전국 최강’ 입증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 금3 은1 동1…김지선 국가대표 선발 겹경사

광주체고(교장 엄길훈)가 제14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3, 은1, 동1의 성적을 내면서 ‘최강’ 실력을 과시했다. ‘에이스’ 김지선(3년)은 맹행한 선배들을 누르고 조정 여자 경량급싱글스컬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김지선은 13일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여고부 경량급더블스컬에서 배지영(1년)과 7분 54초 26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1위를 차지했다. 2위 부산체고(8분 11초 45)를 넉넉하게 따돌리면서 만든 금메달이다.

김지선은 배지영·천지민·노효림(이상 1년)과 출전한 쿼드러플스컬에서는 서울체고(7분 19초 20)에 이어 7분 24초 40으로 은메달을 가져왔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김지선은 앞서 9·10일 같은 경기장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량급싱글스컬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6명이 나선 이번 선발전에서 유일한 고등학교생이었던 김지선은 대학부와 일반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니’들을 꺾고 에르고메타 평가와 수상테스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여고부 더블스컬 정상도 광주체고의 차지가 됐다. 천지민·노효림이 더블스컬에서 7분 48초 87의 기록으로 서울체고(7분 53초 10)에 앞서 금메달을 쟁겼다.

남고부에서는 강준우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준우(3년)는 경량급싱글스컬에서 7분 31초



광주체고 김지선(왼쪽)과 배지영.

〈광주체고 제공〉

45에 결승선을 통과해 인천체고 한승운(7분 35초 19)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강준우는 박성빈·박준호·강한경(이상 2년)과 출전한 쿼드러플스컬에서는 동메달을 기록했다.

여자일반부 더블스컬에서는 광주조정협회 서에서와 김정민이 7분 40초 76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만들었다.

신영금 광주체고 조정 감독은 “김지선은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다. 수상 훈련, 경기 중에 밸런스가 좋고 중량급 선수들하고 싸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근성과 끈기가 있는 선수다”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조정을 이끌어갈 유망주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배구, VNL 최하위 추락…내년 못뚝다

한국 여자배구가 내년에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뛸 수 없게 됐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3일 일본 지바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0-3으로 완패해 1승 11패를 기록하며 전체 18개 참가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승점 5로 한국과 동률이던 최하위 태국이 14일 캐나다와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

하면서 한국은 최하위로 추락해 강등됐다.

한국은 이번 VNL에서 캐나다에 유일하게 3-2 승리를 챙겼지만, 나머지 11개 팀에는 모두 패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8개국이 12경기씩 치러 승수·승점·세트 득실률·점수 득실률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최하위 팀은 VNL의 하위 리그 격인 챌린저리그로 강등된다. /연합뉴스